

제1절 각(閣)

1. 삼조어비각(三朝御批閣)

(1) 어지 검교직각(御旨 檢校直閣)

울진 선비 윤사진(尹思進)이 노병으로 오지 못한다 하며 그가 지은 책『정관치설(井觀癡說)』3권과『통서연의(通書衍義)』1권 잡서(雜書) 1권을 보내온 것을 보니 그 사람을 만나고 싶으나 먼저 그 글을 보았노라. 경의 말에 나이 많아 오지 못한다 하니 어찌 강제할 수 있겠는가. 울진 선비 윤사진(尹思進)을 강원도 영동교양관(嶺東敎養官)으로 임명하니 성심으로 가르쳐라. 타도(他道) 교양관(敎養官)은 수령(守令) 칠방(察訪)이 겸직하나 특차(特差)다. 벼슬을 내리지 않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서울 교관과 같은 것이며 군사령관의 변방 현지 파견과 같이 현지에서 복직도록 벼슬을 보내노라. 그가 지은 책을 보니 하도낙서(河圖洛書)와 수리(數理)에 정통하고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이기분별(理氣分別)을 해득하였도다. 어찌 그토록 공부하여 알아냈는가. 명문 사대부 집에서도 능히 하기 어렵건만 벽향초야(僻鄉草野)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니 어찌 기이하고 기쁘지 않으리오. 지금 한번 펴보고 책상머리에 둘 뿐 인즉 특별히 그 사람을 찾아 부르지 않으면 그 책의 뜻을 알지 못할 것이므로 그 책을 간추리고 뜻을 정리하여 여러 사람이 알도록 힘써야 할지니 그 책을 가두어두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5권을 도로 내려보내노라. 경은 즉시 지방 장관으로 하여금 사진(思進)과 더불어 십분 알기 쉽게 간추리고 다시 정리 검정하여 두세 권으로 하고 각판(刻板) 또는 필사 간행하여 편이하게 쓰도록 힘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목판(木板)을 잘 보관하여 자주 간행(刊行)토록 함과 동시에 각 관청에 보내도록 하라.

건륭(乾隆) 57년 정월(正月) 14일[1792년 조선 정조(正祖) 16년 1월 14일]

검교직각 원본(檢校直閣 原本)

제2절 고비(古碑)

1. 석교 고비(石橋 古碑)

평해군 북쪽 10리 월송림 가에 모래바닥의 하천이 있어 바다물과 서로 통해 사시(四時)로 물이 넘쳐 모든 일상생활과 상인들의 통행이 어려웠다. 공사생활(公私生活)에 불편이 없

도록 갖추고자 군수 조인징(趙仁徵)이 고을 사람들과 의논하여 돌로 다리를 이룩하여 놓으니 모든 왕래에 막힘이 없게 되었다. 공사비 부담 등 공사에 참가한 자들을 이 돌에 새겨둔다.

만력(萬曆) 31년(1603 : 선조 37) 3월 일

대공주(大供主) : 김△수(金△水)

시주(施主) : 95명

석수(石手) : 황종이(黃從伊)

제3절 국보

1. 국보 제242호 울진봉평신라비(蔚珍鳳坪新羅碑)⁸³⁹

갑진년(甲辰年)[신라 법흥왕 11년, 524년] 정월[1월] 15일에 탁부의 모즉지 매금왕[법흥왕]과 사탁부의 사부지 갈문왕[법흥왕의 동생인 입종, 즉 진흥왕의 아버지], 본파부의 무부지 오간지, 잠탁부의 미흔지 간지, 사탁부의 이점지 태아간지, 길선지 아간지, 일독부지 일길간지, 탁부의 물력지[거칠부의 아버지] 일길간지, 신육지 거별간지, 일부지 태나마, 일이지 태나마, 모심지 나마, 사탁부의 십사지 나마, 실이지 나마 등이 하교(下敎)하신 일이다.

따로 영(令)을 내리시길, “거별모라[울진지역 중심지]와 남미지[울진지역 촌]는 본래 노인(奴人)이었다. 비록 노인이었지만 앞선 시기에 왕께서 크게 법을 내려주셨다(大敎法). 그런데 길이 좁고 험하고 험한 화야계성(禾耶界城)에 마음대로 불을 내고 성(城)을 침범하여 우리 대군(大軍)이 일어났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는 행동(行)과 말(言)이 하나같아야 사람들이 주(主)를 보호하고 왕(王)을 높이게 될 것이니, 큰 노인촌(太奴村)은 값 5(50%)를 부담하고 그 나머지 일들은 종목별로 노인법(奴人法)에 따르라.”라고 하셨다.

이에 신라 6부(新羅六部)는 칡소(斑牛)를 죽여 피가 솟는 것을 보고 재판하였다. 일을 처리한 대인(大人)은 탁부의 내사지 나마와 사탁부의 일등지 나마, 막차 나족지, 탁부의 비수루 나족지, 거별모라 도사 졸차 소사제지, 실지[삼척] 도사 오루차 소사제지이다. 거별모라 담모리 일벌, 미의지 파단, 탄지사리 일금지와 아대혜촌[울진지역 촌] 사인 나이리는 장(杖) 60대, 갈시조촌[울진지역 촌] 사인 나이리 거△척, 남미지촌[울진지역 촌] 사인 익사는 장 100대, 어즉근리는 장 100대에 처한다. 실지[삼척] 군주인 탁부의 이부지 나마가 일을 맡았다.

839. 울진봉평신라비의 해석은 조영훈, 이찬희, 심현용, 2013. 「울진 봉평리 신라비의 재판독과 보존과학적 진단」『文化財』46-3, 국립문화재연구소, 8쪽을 인용했다.